



“처음 판소리 들을 때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송순섭 판소리로 전남대서 석사학위 받은 일본인 곤도 유리씨

그녀가 판소리를 접한 건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을 통해서였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느꼈던 기묘한 흥분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내친 김에 판소리를 제대로 공부해보자 싶었다. 전남대 국문과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전공은 판소리와 마당극 등 한국의 전통공연예술 분야. 지난 여름에는 ‘송순섭과 판소리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같은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판소리 창법 신가… ‘흥보가’ 가장 좋아

“韓·日 전통예술 통합해 가르치는 게 꿈”

학위를 받은 주인공은 일본 대학원생이다. 한국 사람도 잘 모르는 판소리로 논문을 쓴 게 신기했다. 최근 전남대에서 만난 일본인 곤도 유리(28)씨는 한국어가 유창했다.

와세다 대학 제1문학부를 졸업한 그녀는 제 2외국어로 한국을 선택한 게 계기가 돼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다.

지난 2007년 조선대 섬머스쿨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그녀는 ‘운명’같은 걸 느꼈다.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면서였다. 그녀의 생일은 5월 18일이다.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숨어있는 곳인줄 몰랐다. 내가 태어나기 6년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놀라웠다. 또래 사람들이 죽었다는 점이 무섭기도 했다. 과연 나는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하게 됐다. 이후 광주가 일본에서 변방으로 불리는 내 고향 아오모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는 고향인 아오모리보다는 도시, 학교를 다녔던 도쿄보다는 시골인데 그 느낌이 좋았다. 맛있는 것 많고 사람도 좋고.”

2009년 교환학생으로 다시 조선대 국문과를 찾았을 때는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어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단순히 언어를 익힐 게 아니라, 한국어로 전문적인 분야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와세다 대학 재학 때부터 가부키 등 일본 전통 공연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2011년 졸업과 동시에 한국을 찾았다.

그때 만난 게 ‘춘향뎐’이다. 조승우가 주연을 맡은 ‘춘향뎐’은 독특한 스타일의 영화다. 배우들이 대사를 하고 연기를 하지만 바탕에는 조상현 명창의 ‘춘향가’가 계속 흘러나온다. 판소리가 주인공인 셈이었다.

“사람들에게 판소리를 많이 알게 해준 ‘서편제’를 먼저 알았다더라면 판소리에 지금처럼 확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 처음 판소리를 들었을 때 기묘한 흥분을 느꼈다. 맑은 소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소리를 들었을 때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어디에도 없는 그런 창법이어서 너무 신기했다.”

전남대 국문과 석사 과정에 입학한 건 지난 2011년 9월이었다. 판소리가 음악적, 문학적으로 분석되는 경우는 많지만 연극적 요소가 강한 종합예술로 접근

해 분석하고 싶어 논문 주제를 판소리로 잡았다. 지도교수인 표인주 교수가 ‘인물’을 통해 판소리를 분석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인 송순섭 선생을 만나 여러차례 인터뷰하고 연구자료와 각종 문헌 자료를 살폈다.

“그냥 좋아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건 많이 달랐다. 개념부터 다시 다 공부해야했고, 인터뷰를 진행할 때 선생님의 사투리를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판소리를 전공하는 선배가 항상 동행했다. 개인을 연구하다 보니 스승의 스승의 스승이 계속 나와서 힘들었다. (웃음) 소리의 세계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과 삶이 녹아 있어 그걸 헤아리는 것도 어려웠다. 논문을 가져다 드렸더니 송선생님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

판소리 학원에서 단가를 배우고, 장단과 소리도 조금씩 배운 그녀는 판소리 6바탕 중에서 ‘흥보가’를 좋아한다. ‘춘향가’ 중 ‘사랑가’도 좋아하는 대목이다.

“박사 학위를 마치고 돌아가면 일본에서 가부키를 더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배운 전통공연예술을 통합해 가르치는 게 꿈이다. 한일간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직 박사 학위 주제를 확정할 것은 아니지만 도둑 잡이 굿, 잡색 놀음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리에 관심이 많아 한국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한다는 그녀는 “이상하게 마지막에는 일본 맛이 난다”며 웃었다.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월간

예능

12월호



송정리역 100년 남도 철길 조명

하철경·김원중씨 등 인터뷰

광주일보 자체지 월간 ‘예능’ 12월호가 나왔다. 207쪽 분량으로 발간된 12월호에는 지난 10월 1일 송정리역 개통 100년을 계기로 지역민들의 발이 되어준 남도 철길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특집 ‘남도의 철길, 문화를 품다’에서는 문화공간으로 변한 광주의 폐선부지 푸른길, 추억이 서려 있는 극락강역·능주역·남평역의 과거와 오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간이역의 사연과 풍경을 다뤘다.

또 다른 특집으로 저물어가는 201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이들을 소개했다. 지나온 삶을 자서전으로, 영상으로 정리하는 이웃들을 만나 그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기획 ‘예술가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고단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계를 걸어가는 예술인들의 실상과 복지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봤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하철경(호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를 만나 화가이자 교수로, 미술 행정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야기를, 마주앉은 책과 삶에서는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이승우(조선대 문창과) 교수를 만나 그의 문학과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이달의 아티스트 코너에서는 ‘바위섬’의 가수 김원중 씨를 만날 수 있다. 10년째 ‘뽕’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를 열고 있는 그를 만나 가요 뿐만 아니라 재즈와 클래식, 미술, 영화까지 모든 장르를 보여주는 열정과 사는 얘기를 들었다.

문화역사기행에서는 정음의 동화혁명유적지를 찾아 농민군의 활약상을 살펴보고, 녹두장군 전봉준의 고택을 방문해 민초들을 사랑했던 그의 흔적을 더듬어봤다. 명작의 고향에서는 황석영의 소설 ‘장길산’배경이 되기도 했던 화순 운주사를 찾아 미륵의 꿈을 기원해봤다.

/박성천기자 kskypark@kwangju.co.kr

‘신창동 직물문화의 동아시아적 관점’

광주박물관, 5일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오는 5일 광주 신창동유적(사적 제375호)에서 출토된 직물자료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중국과 일본의 고대직물에 대한 연구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신창동 직물문화의 동아시아적 관점’을 개최한다.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천조각은 한반도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비단과 마직물로 드러났다.

심포지엄은 조현종 관장의 ‘신창동의 직물문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신창동 출토 직물의 종류와 제작 특성-박승원(국립중앙박물관) ▲한국 고대직물의 역사와 제작기술-박윤미(동양복식연구원) ▲중국 동주시대의 방직연구-주양(중국비단박물관) ▲고대 일본의 직물과 방직기술-히가시무라 준코(일본 후쿠이 대학)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동아시아 고대직물연구와 최근동향’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열린다. 문의 062-570-703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역발전 위한 크라우드펀딩 이해’

4일 조선대서 광주 창조경제 포럼

광주 창조경제 포럼 ‘지역창조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 크라우드 펀딩’이 오는 4일 오후 2시 조선대학교 이주현관에서 열린다.

사회적협동조합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이사장 이병훈)이 주최하고 소셜벤처기업 (주) 컬처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해와 지역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현식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마이미’대표와 김광옥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하며 강보경(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부 과장), 정두용(청년문화공동체 ‘무한’ 대표), 이순화(문화컨텐츠 그룹 ‘있다+트다’ 실장)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기훈(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씨의 사회로 상호 토론이 이어진다. 문의 070-8285-317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젊은 춤꾼들의 향연

오늘 광주현대춤 페스티벌

젊은 예술가들의 무대는 날 것 그대로의 싱싱함이 있다. 조금은 어설피더라도,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의 발현은 무대에 신선함을 불어넣는다.

차세대 젊은 춤꾼의 무대를 만난다. 개성 넘치는 젊은 안무가들과 그들의 언어를 온몸으로 풀어낸 젊은 무용수의 공연이다. 제7회 광주현대춤 페스티벌이 2일 오후 7시 광주남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이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모두 5명의 젊은 안무가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드림무용단(안무 조선하)은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되새기며 또 다른 삶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꿈 너머 꿈’을 무대에 올린다.

성지현 black-j 무용단(안무 성지현)은 융합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 ‘Tech+’를 선보이며 위재연 무용단은 ‘뽕만…날다’를 공연한다.

‘Sun&friends’(안무 선유라)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틈 사이에서 삶의 돌과구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틈과 틈 사이’를 공연하며 김보민 현대무용단은 ‘秋(추)날 and~’를 선보인다. 문의 062-230-742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겨울 기차여행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1(연동) 1층 신세계백화점 5가리

※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주최 KORAIL 한국관광공사

남이섬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남이섬 기차여행 (12월24일)

시 간	일 정
00:05	광주역출발/가평역 도착
07:00	남이섬/김유정문학촌관광
11:40	춘천소양대 관광
13:10	춘천머거리 자유중식
21:53	춘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79,000원
소아 59,000원

동해일출

동해 추암 촛대바위 일출 기차여행 (12월31일)

시 간	일 정
22:00	광주역출발/동해역 도착
06:40	추암 촛대바위 새벽 일출
09:00	천곡동굴 관광/속리사 관광
12:10	북촌여사당 자유중식
22:30	동해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99,000원
소아 70,000원

태백산

태백산 눈꽃 열차 (1월 매주 금요일)

시 간	일 정
21:45	광주역 출발/태백역 도착
06:00	태백산 등반 및 관광
12:00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탑승
22:05	고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85,000원

정동진

정동진 일출 열차 (1월 매주 금요일)

시 간	일 정
21:45	광주역출발/태백역 도착
06:30	정동진 일출 및 관광
12:00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22:05	고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85,000원

하이원 스키장

하이원 스키장 시즌버스 매일 왕복

시 간	일 정
03:00	염주체육관 주차장
03:05	신세계 백화점 육교 밑
03:10	문화예술화관 육교 밑
08:00	하이원 스키장 도착
16:30	하이원 스키장 출발
21:30	광주도착

1일 왕복요금
50,000원

리프트카, 장비렌탈(주중60%, 주말 50%) 할인 적용